

규중칠우쟁론기(閨中七友爭論記)

※ <규중칠우쟁론기(작자 미상)> 기본내용 파악

⇒ <규중칠우쟁론기>는 한글 수필의 하나로서 척 부인(자), 교두 각시(가위), 세요 각시(바늘), 청홍흑백 각시(실), 인화 부인(인두), 울 낭자(다리미), 감투 할미(골무)로 의인화된 바느질 도구를 규중 여자의 일곱 벗으로 등장시켜,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고 교만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사리에 따라 순응하며 성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이 글은 직분에 따라 성실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이 작품의 묘미는 바늘, 자, 가위 등의 바느질 도구들을 그 생김새와 쓰임새에 따라 각시, 부인, 낭자 등 구체적 인물로 의인화함으로써 각각의 성격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데에 있다. 그리고 의인화된 일곱 인물이 서로 공을 다투는 부분과 원망과 하소연하는 부분이 뚜렷이 대조되는 구성 방식 속에, 이해관계에 따라 변하는 인간 심리나 세태 등이 섬세하게 함축되어 있다.

이렇듯 이 작품은 가전체의 전통을 이으면서 극적 구성과 섬세한 표현으로 묘미를 살리고 있다.

한편, 이 작품에 나타난 여성의 지위를 살펴보자면, 규중 칠우는 공을 다투거나 원망을 토로할 때는 당당하게 자기주장을 펴고 있다. 이 규중 칠우를 규방 여성들의 의인화로 본다면 이는 가부장제적 질서 속에 갇혀 있었던 여성들의 세계에서조차 자신의 주어진 역할만큼 그 정당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새로운 인식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작품의 줄거리

규방의 부인이 바느질할 때 사용하는 자(척 부인), 바늘(세요 각시), 가위(교두 각시), 실(청홍흑백 각시), 골무(감투할미), 인두(인화 부인), 다리미(울 낭자)의 규중 칠우가 제각기 자신의 공이 크다며 다투다가 규방 부인의 책망을 듣는다. 그러자 이번에는 번갈아 그 부인의 야속하고 인정 없음을 성토(聲討-여럿이 모여 어떤 잘못을 소리 높여 비판하고 규탄함)하다가 규방 부인에게 또 야단을 맞는데, 감투 할미가 죄를 빌어 무사하게 된다.

※ 인물, 사건, 배경

인물 (규중칠우의 명칭)	생김새	교두 각시	가위	머리가 갈라진 모양을 따서 붙임
		세요 각시	바늘	바늘의 가는 모양을 따서 붙임
		감투 할미	골무	감투의 생김새가 골무와 유사하다는 데에서 착안해 붙임
	색깔	청홍 흑백 각시	실	실의 갖가지 색깔을 따서 붙임
	한자	척 부인	자	‘자’를 의미하는 한자 尺(척)을 따서 붙임
		울 낭자	다리미	울은 원래의 울(複: 다리 울)을 변형시켜 쓴 것으로 보임. 혹은 ‘울’은 ‘올다’의 어간과 같으므로 다리미에서 수증기가 올라오는 모습을 연상하여 붙인 것이라는 이설(異說)이 있음
사건	쓰임새	인화 낭자	인두	쓰임새에 따라 붙임(引火)
	규중 칠우가 각자 자기 공을 자랑하는 내용에서 인간에 대한 원망을 말하는 내용으로 전환하게 해 주는 것은 규중 부인의 말과 잠이다. 규중 부인은 칠우의 공은 사람이 쓰기에 달렸다면 잠을 자기에 규중 칠우는 규중 부인을 자유롭게 원망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규중 부인은 잠을 자면서도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개연성(蓋然性-그럴 듯함)이 없다고도 할 수 있으나 내용의 극적인 전개를 위해 필요한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규중 칠우에 대한 소개			
	규중 칠우의 자기 공치사(功致辭-남을 위하여 애쓴 것을 생색내며 스스로 자랑함)			
	규중 칠우의 인간에 대한 원망			
	감투 할미의 사죄와 규중 부인의 치사			

배경	고려 후기	✓ 술, 돈, 대나무, 지팡이 등과 같은 사물을 의인화함 ✓ 사람의 일생을 다룬 전의 형식을 취함 ✓ 계세징인의 목적을 띠
	조선 초기	✓ 인간의 심성을 의인화함 ✓ 인간 마음의 갈등을 충신과 간신의 다툼으로 설정하고 이들의 평정 과정을 내용으로 함
	조선 후기	✓ <규중칠우쟁론기>와 <조침문>과 같이 규방의 사물들을 의인화시킨 작품이 나옴

※ 본문 해설

세요 각시 가는 허리 구뭇기며 날랜 부리 두루허 이르되,

바늘 : 가는 허리 (생김새를 통해 명명 - 이름붙임)

"양우(兩友)의 말이 불가하다. 진주 열 그릇이나 펜 후에 구슬이라 할 것이니, 재단(裁斷)에 능소능 두 친구의 말은 틀렸어 (척 부인과 교두각시 - 자랑 가위) 풍유법 : 속담을 통해 자신의 의도를 전달함

대(能小能大)하다 하나 나 곧 아니면 작의(作衣)를 어찌하리오 세누비 미누비 저른 술 긴 옷을 일 내가 아니면 옷을 어찌 만들겠니? 설의법 : 만들 수 없을 것이다

우미 나의 날래고 빠름이 아니면 잘게 뜨며 굵게 박아 마음대로 하리오, 척 부인의 자혀 내고 교두 어려저러한 옷을 만들거를 어찌 맘대로 하겠니? 자가 재고 가위가 자른다고

각시 버혀 내다하나 내 아니면 공이 없으려든 두 벗이 무삼 공이라 자랑하냐노."

자신의 공을 자랑하고 있다 (자기 중심적 / 건방지기 ::)

청홍 각시 얼굴이 붉으락프르락하야 노 왈, 다른 아들을 낳았아 보는 인물의 태도

청색 홍색 십 화를 내며 (원래 실이 알록달록 한건데 그것 재미로 승화시킴) 해학

"세요야, 네 공이 내 공이라. 자랑 마라. 네 아모리 착한 체하나 한 술 반 술인들 내 아니면 네 어 니가 한 뼘이라도 뜨려면 실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니니?"

감토 할미 웃고 이르되,

바늘에 찔릴까봐 바느질할 때 끼는 꼴무 할머니 (할머니라서 경향이 풍부하고 지혜가 있음)

"각시님네, 위연만 자랑 마소. 이 늙인이 수말 적기로 아가시네 손부리 아프지 아니하게 바느질 도 영간히 해라잉

와 드리나니 고어에 운(云), 닭의 입이 될지언정 소 뒤는 되지 말라 하였으니, 청홍 각시는 세요의 풍유법 (보잘 것 없는 것이라도 리더가 낫지, 대단한 사람의 심부름꾼이 되고 실진 알아)

뒤를 따라다니며 무삼 말 하시나노, 실로 얼굴이 아까왜라. 나는 매양 세요의 귀에 질리었으되 낮가 싹따위, 바늘이나 따라다니는 주제에 :: (팩트폭행) 너의 예쁜 얼굴이 아깝다 내가 얼마나 바늘에 찔리는데 두꺼운 외모

족이 두꺼워 견덜 만하고 아모 말도 아니 하노라."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도 생색은 내지 않는단다 (지 자랑)

인화 당재 이르되,

인두 (다리미와 비슷)

"그대네는 다토지 말라. 나도 잠간 공을 말하리라. 미누비 세누비 놀로 하여 저가락같이 고으며, 혼 여러 천들이 누구 때문에 젓가락같이 고우며 (누비놓은 옷은 울퉁불퉁함)

술이 나 곧 아니면 어찌 풀로 불인 듯이 고으리요. 침재(針才) 용속한 재 들락날락 바르지 못한 것도 옷의 술기부본도 내가 아니면 어찌 곱겠니? (울퉁불퉁 하겠지) 바느질도 더럽게 못하는 우리 주인

내의 손바닥을 한번 씻으면 잘못된 흔적이 감초여 세요의 공이 날로 하여 광채 나나니라."

을 낭재 크나큰 입을 벌리고 너털웃음으로 이르되,

"인화야, 너와 나는 소임이 같다. 연이나 인화는 침선뿐이라, 나는 천만 가지 의복에 아니 참여하는
 너랑 나랑은 같은 일을 하잖아 너는 바느질할 때만 쓰지만 나는 완성된 옷을 땀 다음에 퍼려고도 쓰잖니
 곳이 없고, 가중한 여자들은 하로 할 일도 열흘이나 구기어 살이 주억주억한 것을 내의 광둔(廣臀)으
 게올러빠진 여자들이 열흘씩 (땀지 않고) 묵혀둔 나의 넓은 엉덩이 ㅋㅋ
 로 한번 스치면 굵은 살 가는 살 날날이 퍼지며 제도와 모양이 고와지고 더욱 하절(夏節)을 만나면
 여름철 (땀뿜거리가 많은) 여자들이
 소임이 다사하여 일일도 한가지 못한지라, 의복이 나 곧 아니면 어찌 고으며 더욱 세답하는 년들이
 청소하는 여자들
 게으러 풀 먹여 넣어 두고 잠만 자면 브들쳐 말린 것을 나의 광둔 아니면 어찌 고으며, 세상 남녀
 풀만 먹인 채로 햇빛에 널고는 자버리는 까닭에 심하게 뻗뻗해진 것
 어찌 반반한 것을 입으리오,

이러므로 **작의공(作衣功)**이 내 제일이 되나니라." / **규중 부인**이 이르되,

중심 화제 : 옷 만드는 공

"칠우의 공으로 의복을 다스리나 그 공이 사람의 쓰기에 있나니 어찌 칠우의 공이라 하리오."

꺼져! 그래도 인간이 땀이거든?

하고 언필에 칠우를 밀치고 베개를 돌오고 잠을 깊이 드니 **척 부인**이 탄식하고 이르되,

자 부인이

"매야할사 사람이오 공 모르는 것은 너재로다. 의복 마를 제는 문져 찾고 일워 내면 자기 공이라 하
 진짜 인간은 매정하고 공을 모르는 뻔뻔하구나

고, 게으른 중 잠 깨오는 막대는 나 곧 아니면 못 칠 줄로 알고 내 허리 브러짐도 모르니 어찌 야속
 게으른 중 잠 깨올 때도 나를 가지고 막 때리면 내가 얼마나 아픈 지 ㅠ

하고 노흠지 아니리오." / **고두 각시** 이어 가로대,

깨백치지 않겠니? 설의법 가위

"그대 말이 가하다. 옷 말라 버힐 때는 나 아니면 못 하려마는 드나니 아니 드나니 하고 내어 던지며
 말아말아 잘 드네 안 드네 불만만 하고

양각을 각각 잡아 흔들 제는 토심적이고 노흠기 어찌 측량하리오. 세요 각시 잠간이나 쉬랴 하고 다라
 양 날을 잡아 흔들니 얼마나 어지러운데 토하고 싶어 (ㅋㅋ : 의인화 진짜 잘한듯

나면 매양 내 탓만 너져 내게 집탈하니 마치 내가 감춘 듯이 문고리에 거꾸로 달아 놓고 좌우로 고

면하며 전후로 수험하야 언어 내기 몇 번인 동 알리오. 그 공을 모르니 어찌 애원하지 아니리오."

바늘을 찾으려고 가위 날로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

슬프고 원망스럽다

세요 각시 한숨짓고 이르되,

바늘

"너는커니와 내 일즉 무삼 일 사람의 손에 보채이며 요악지성(妖惡之聲)*을 듣는고, 각골통한(刻骨
 무슨 죄가 있기에 사람으로부터 날카롭다고 욕만 잔뜩 들어 한스럽다

痛恨)하며, 더욱 나의 약한 허리 휘드르며 날랜 부리 두루혀 힘껏 침선을 돕는 줄은 모르고 마음 맞

지 아니면 나의 허리를 브러질러 화로에 넣으니 어찌 통원하지 아니리오. 사람과는 극한 원수라. 값
 허리를 부러뜨려 화로에 집어넣어버리니 (죽여버리니 너무 원통해)

을 길 없어 이따 감 손톱 밑을 질러 피를 내어 설한(雪恨)하면 조금 시원하나, 간혹한 감토 할미 밀
 그래서 내가 가끔 여자 손가락 밑을 찌르는데 그때 쫘 복수하는 기분이라 좋다 ㅋㅋ (익살이나 재치가 있는 표현

어 만류하니 애달 고 못 견디리로다." / **인혜** 눈물지어 이르되,

인화

"그대는 데아라 아야라 하는도다. 나는 무삼 죄로 포락지형(烙之刑)*을 입어 붉은 불 가운데 낮을
 넌 그래도 아프다 얼마나 말이라도 하지 난 더 힘든데도 참거든? (얼마나 뜨거운데ㅜㅜ)
 지지며 굳은 것 깨치기는 날을 다 시키니 설고 괴롭기 척량하지 못할레라."

게다가, 날카로운 것을 뿔 때도 날 쓰는데 정말 아프다

올 낭재 척연 왈,

"그대와 소임(所任)이 같고 욕되기 한가지라. 제 옷을 문지르고 먹을 잡아 들까부르며, 우겨 누르니

황천(皇天)이 덤치는 듯 심신이 아득하여 내의 목이 달아날 적이 몇 번이나 한 동 알리오."

난 다리미를 잡고 이리저리 혼들면 죽을 것처럼 어지러워

칠우 이렇듯 답논하며 회포를 이르더니 **자던 여재** 문득 깨쳐 칠우다려 왈,

"칠우는 내 허물을 그대도록 하느냐."

니네 아직도 내 욕하니? (약간 이 수필에서 이상한 대목 : 분명 잘못었다고 했는데..)

감토 할미 고두 사 왈(叩頭謝曰),

"젊은 것들이 망녕도이 험이 없는지라 족하지 못하리로다. 저희들이 재죄 있으나 공이 많음을 자랑
 젊은 것들 (자신을 뵈 나머지 6명) 이 생각이 없어서 만족하지 못하십니다

하야 원언(怨言)*을 지으니 마땅히 결곤(決棍)하암즉하되, 평일 깊은 정과 저희 조고만 공을 생각하
 원망의 소리를 하니 마땅히 처맞아야할 듯하지만 (갑자기 말 빼는 할머니 ㅋㅋ)

야 용서하심이 옳을가 하나이다." / 여재 답 왈,

"할미 말을 좇아 물시(勿施)하리니, 내 손부리 성하미 할미 공이라. 꿰어 차고 다니며 은혜를 잊지
 처벌을 그만두니

아니하리니 금낭(錦囊)을 지어 그 가운데 넣어 몸에 진혀 서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할미는 **고두 배사(叩頭拜謝)***하고 **제봉(諸朋)**은 **참안(慙顔)하야*** 물러나리라.

인사를 하고, 나머지 애들은 부끄러워 물러나더라

-작자 미상, 「규중칠우쟁론기(閩中七友爭論記)」,

※ 꿀팁 핵심 포커스!

✓ 규중 칠우 ⇒ 상호간 다툼(공치사) → 부인 원망 불평
(풍자대상-경쟁관계) (비판주체-동료관계)

✓ 소필임에도 3인칭 관찰자 시점 사용(사물을 의인화하여 풍자)
⇒ 가전체와 비슷

✓ 감토할미(골무) 보는 시선 「 긍정적 ⇒ 중재자
↳ 부정적 ⇒ 교언영색(巧言令色)
: 남의 환심을 사려고 아첨하는 교묘한 말과 보기 좋게 꾸미는 얼굴빛.

✓ 주제 「 ① 타인을 헐뜯으며 공치사 세태 비판
↳ ② 역할에 따라 직분에 따라 성실한 삶 보여야 함
↳ ③ 공을 알아주지 않는 사회에 대한 풍자

갈래	고전 수필, 내간체 수필 (여자가 쓴 수필)
성격	풍자적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내 잘난 맛만 따지는 세태) 교훈적, 우화적 (의인화)
재재	바느질 도구들의 공치사 (지 자랑) 과 불평
주제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고 공치사만 일삼는 세태 및 역할과 직분에 따른 성실한 삶 추구
특징	- 사물을 의인화하여 세태를 풍자함 (옛날에 가전체 [사물을 의인화해서 세태 풍자하는] 영향) - 3인칭 시점에 의한 객관적 관찰 ('나'라는 서술자가 없는 상태에서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지 않음)



부인을 잠재음으로써 (?) 칠우들이 자유롭게 공을 다루게 하고, 부인이 잠을 깨워 꾸중을 함으로써 칠우들의 불평을 촉발하여 다시 재음으로써 그 불평을 자유롭게 토로할 수 있게 꾸밈. 내적 논리를 고려한 계산된 배치



부정적으로 본다면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고 불평하지 말고
직분에 따라 성실한 삶을 살아야지



긍정적으로 본다면

가부장적인 질서에 갇혀 있던 봉건 시대
여성들의 자기 인식이 나타난 작품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모습)